

보도	2023.12.4.(월) 조간	배포	2023.12.1.(금)		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	책임자	팀 장	유석호	(02-3145-7587)
		담당자	선 임	이광연	(02-3145-7585)

채권의 투자정보 및 거래비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하세요.

- 최근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 급증에 따른 투자권유 관련 제도정비 추진 -

주요 내용 [요약]

◆ 최근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변동성도 확대되면서,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채권에 직접투자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,

○ 채권의 투자위험 및 거래비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아래와 같이 개선할 예정입니다.

① 민평금리* 등 투자 관련 참고지표를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

*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로 채권투자시 참고지표로 널리 활용 (금투협 채권정보센터(kofiabond.or.kr) 등에서 신용등급별로 조회 가능)

② 장기채 관련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시 유의사항을 명확히 고지

③ 금리변동에 따른 손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표·그래프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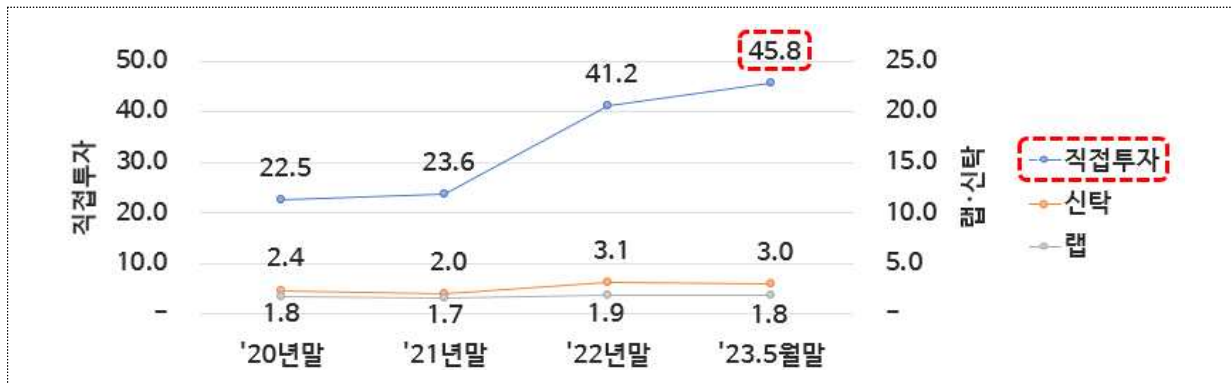
④ 증권회사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된 종목 및 제외 사유를 안내

➡ 투자자는 채권거래시 민평금리 등 참고지표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고, 채권의 안정성뿐만 아니라, 장기채의 가격변동 가능성, 중도매도가 어렵다는 점 등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.

1 개인투자자 채권투자 현황

◆ 개인투자자는 주로 영업점에서 국내 채권을 직접 거래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 및 장기물 위주로 투자가 증가

- (투자방식)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는 랩·신탁(채권형) 등 간접 투자보다는 위탁계좌를 통한 직접투자 위주로 증가
 - '23.5월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한 채권의 평가잔액은 45.8조원으로 '21년말(23.6조원) 대비 약 2배 증가(+93.6%)



- (직접투자) '23.1~5월중 채권 직접투자는 국내채권 장외거래(83.5%)가 가장 높고, 해외채권 장외거래*(8.3%), 국내채권 장내거래(8.2%) 등 순임
 - * 국가별 구성 : 미국(64.5%), 브라질(28.0%), 유럽(0.3%) 등

- (투자자유형)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(51.5%)를 중심으로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*(77.2%)에서 판매가 이루어짐

*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'23년부터 온라인(59.6%)이 오프라인(40.4%)을 초과

- (채권특성) 그간 채권 장외거래는 (AB)STB의 거래비중('23.1~5월 42.5%)이 가장 높았으나, 최근 장기물*·국채** 위주로 거래가 증가

* 장기물 거래비중 : ('21년) 3.4% → ('22년) 6.7% → ('23.1~5월) 18.1%

** 국 채 거래비중 : ('21년) 0.6% → ('22년) 5.3% → ('23.1~5월) 22.2%

2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 증가원인 및 문제점

가 개인투자자 채권투자 증가원인

- 최근 채권금리 급등 및 변동성 확대, 주식시장 약세, 채권거래 편의성 향상 등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
 - (이자수익·매매차익 기대)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고, 채권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채권*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
 - * 특히, 금리변동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만기 5년 이상 장기채 비중 증가
 - (상대적 안정성) 주식시장의 약세,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ABCP 수요 감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의 매력도 상승
 - (거래 편의성) 증권사의 채권 HTS·MTS 서비스 확대 등으로 거래 편의성이 향상되어 소액투자 활성화

나 증권사 영업관행상 개선 필요사항

-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채권판매시 민평금리 및 거래비용, 장기채 가격변동 가능성, 중도매도시 유의사항 등 고지가 미흡
 - (거래가격)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채권판매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지표인 민평금리 등 미제공

증권사 홈페이지 채권매매 관련 정보제공(예시)

(매수금리·매수단가만 공개, 민평금리 미제공)

발행정보	매수금리 4.8790%, 매수단가 10,063원			
기본정보	투자등급	저위험(4등급)	발행일자	2023.11.01.
	신용등급	A+	만기일자	2026.10.31.
	이자지급방법	3개월 이표채	채권종류	일반회사채
	표면금리	5.0%	변제순위	선순위

- **(거래비용)** 거래금액에는 증권사의 수수료,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거래비용을 별도로 확인하기 곤란하며, 장기채의 경우 거래금액 대비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- 예를 들어, 투자자가 1억원의 채권을 매수*할 경우, 실제 부담하는 거래비용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6만원까지 발생 가능

* 액면금액·매수금액 1억원, 액면금리·민평금리 3.5%, 매수금리 3.4% 가정

채권 매수시 거래비용(예시)

만기 (A)	연간 거래비용 (B)	총거래비용(A×B)	현재시점의 가치
1년	연간 10만원 (= 1억원* x 0.1%**)	10만원	10만원
3년		30만원	28만원
10년		100만원	84만원
30년		300만원	186만원

* 매수금액, ** 민평금리(3.5%) - 매수금리(3.4%)

- **(중도매도시 유의사항)**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할 경우, 만기전에 투자금 회수를 기대했던 투자자가 가용자금 부족 등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
- **(금리변동)** 장기채가 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판매될 경우, 금리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*을 예상하지 못한 투자자의 피해도 초래 가능

* (예시) 만기가 30년인 채권(액면금리·매수금리 = 3.5%)의 경우, 시장금리가 0.3%p 상승시 매수가격 대비 5.32% 평가손실 발생

3 개인투자자의 채권거래 관련 제도정비 추진사항

◆ 개인투자자가 채권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, 채권 관련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

※ 금융투자업자의 「표준투자권유준칙」 개정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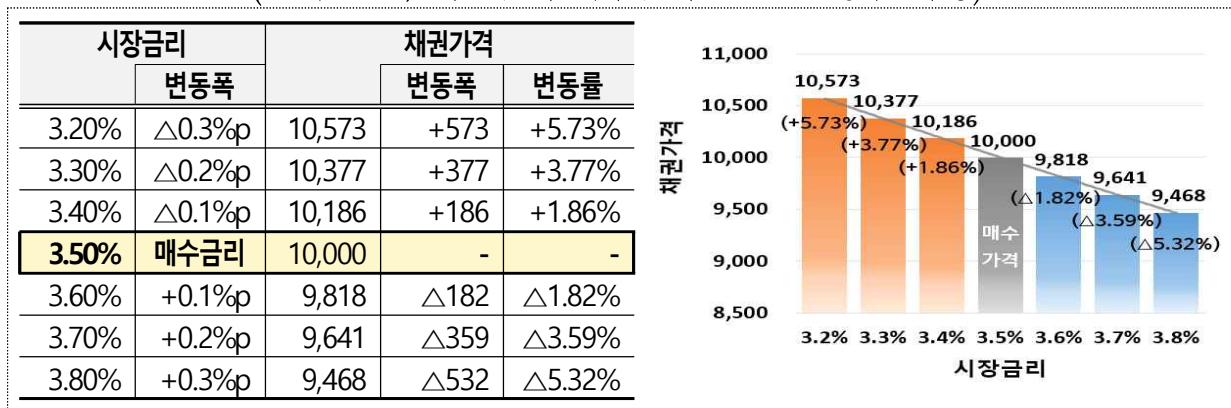
- **(민평금리 등 제공)** 개인투자자가 채권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및 증권사의 온라인플랫폼 등에 채권의 민평금리·가격 및 거래비용 등 정보를 상세히 제공

민평금리·가격 및 거래비용 등 정보제공(안) (만기 3년인 경우 가정)



- ☐ **(손익구조 고지)** 장기물 등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채권가격이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사실 고지
-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투자의 손익구조(Pay-off)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·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

금리변동에 따른 채권투자의 손익구조 시각화자료(안)
(만기 30년, 액면금리·매수금리 3.5%인 경우 가정)



- ☐ **(중도매도시 유의사항 고지)**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 및 채권의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
- ☐ **(거래가능종목 제외안내)** 증권사가 과거에 채권을 판매하였으나, 현재 거래가능종목에서 제외된 경우, HTS·MTS 또는 투자자 고지 등을 통해 제외 사실 및 사유*를 제공

* 신용등급 하락, 채무불이행(EOD) 등

4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시 유의사항

◆ 채권 장외거래는 거래방법, 손익구조 및 투자위험 등이 주식과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됨

가. 민평금리를 투자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.

□ 증권사는 채권 장외거래시 개인투자자에게 매매금리 및 매매 단가만을 안내

➡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 참고지표인 민평금리* 등을 참고하여 투자할 필요

*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로 채권투자시 참고지표로 널리 활용(금투협 채권정보센터(kofiabond.or.kr) 등에서 신용등급별로 조회 가능)

나. 만기가 긴 채권의 투자위험에 대해 알아두세요.

□ 만기가 긴 채권(10년·30년물 등)은 만기가 짧은 채권(1·3년물 등)에 비해 채권가격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변동*

* 장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각할 경우, 시가변동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

➡ 장기채 투자시 채권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

다. 중도매도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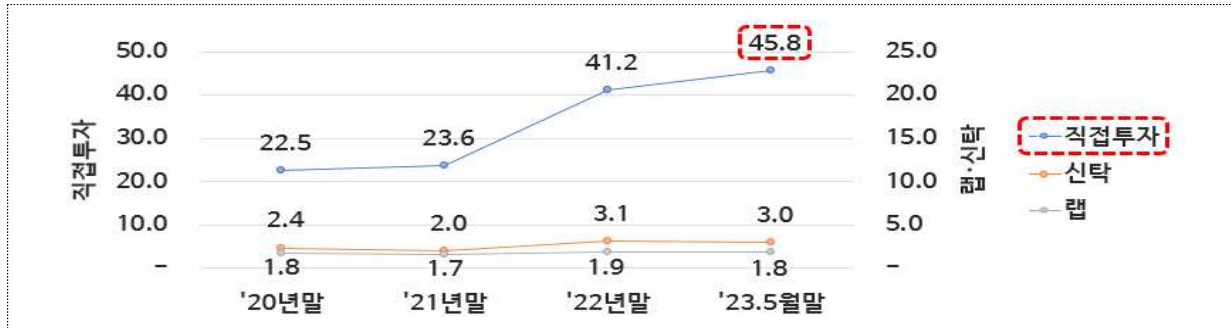
□ 증권사는 시장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거래가 가능한 채권 목록을 주기적으로 변경*

* 개인투자자가 채권을 매수한 후, 동 채권이 증권사의 거래가능 채권목록에서 제외될 경우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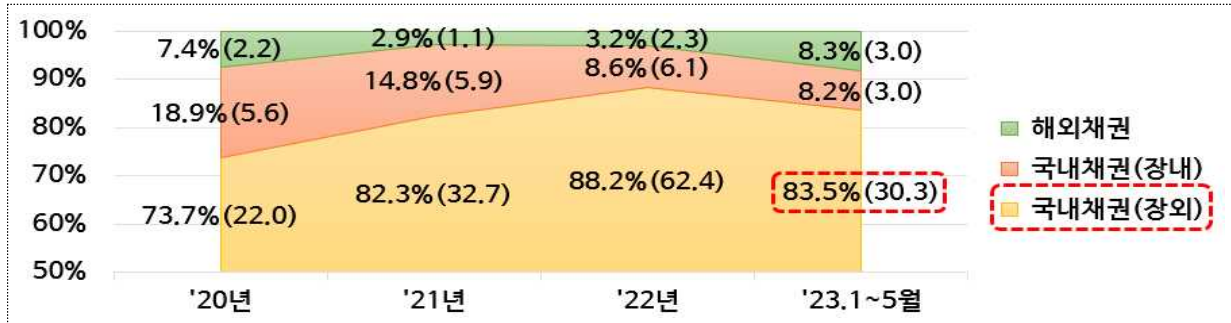
➡ 매수한 채권의 중도매도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적시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

- 금융감독원은 채권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「표준투자권유준칙」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,
 -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,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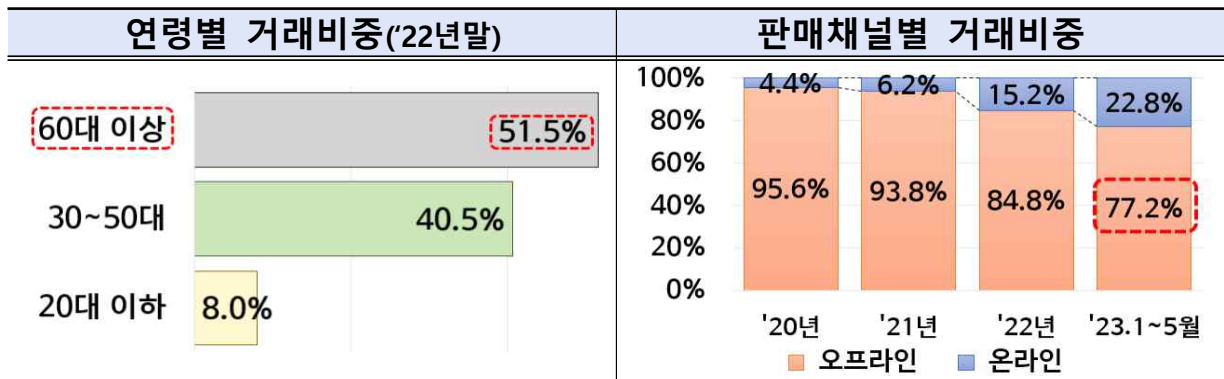
□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(평가잔액) 방식 (단위 : 조원)



□ 개인투자자의 채권 직접투자(거래금액) 현황 (단위 : 조원)



□ 개인투자자의 국내채권 장외거래 유형



□ 개인투자자의 장외거래 대상 국내채권 종류

